

제 27차 IPA(국제출판협회)

베를린총회 참가,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차기 총회 서울서... 행사 진행 정보·노하우 수집
'대회기 인수, 4년 후 서울 개최 대내외 공표'

“이번 행사는 차기 총회 개최국으로서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신임 IPA회장과 사무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4년후 서울총회 준비의 유력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수확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7차 국제출판협회(IPA)총회에 참석했던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2008년 서울총회야말로 세계 출판인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잔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9개국에서 참가한 이번 베를린 총회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출판’이란 진취적 메시지를 내건 국제적인 행사였다. 내용도 비교적 알차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세계 출판인들의 ‘올림픽’답게 다채롭고 의미 깊은 콘텐츠가 돋보인 행사”라며 “특히 행사 프로그램이나 진행 방식면에서 차기 개최국인 우리로선 눈여겨볼 만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총회에선 안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신임 IPA회장을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정관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정비가 이뤄졌다. 그중 백미는 마지막날 채택한 IPA총회 5대 결의안이었다.

참가자들은 ■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에 의사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촉구하는 한편, ■ 효과적인 저작권법 보호방안 강구 ■ 전 세계 문명 퇴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 ■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 ■ 위기에 처한 도서관 지원방안모색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차기 개최국 대표로서 현지를 방문한 이 회장과 국내 주요 출판계 인사들에게 이번 총회의 의미는 각별했다. 폐막식에선 이 회장이 IPA기를 인수받음으로써 제 28차 서울IPA총회의 개최를 대내외에 공표하기도 했다.

이 회장 등은 행사기간 내내 베를린 총회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학습’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각국의 출판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갖고, 해외 출판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며, 행사 매뉴얼을 면밀히 관찰·분석하면서 ‘분초 단위’의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서울총회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회 전체 주제와 개별 토론회의 주제, 기조연설자,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회장은 “빠른 시간 내에 서울총회 조직위를 구성하고, 개최시
기 또한 오는 9월 이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베를
린 총회를 지켜보면서 충분하고 치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새삼 느
꼈다는 것이다.

“베를린 총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내실 있게 행사
가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옥의 티’도 없지 않았어요. 지나치게
딱딱한 주제발표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비싼 등록비가 흠이라면 흠이
죠.” 본래 1,000명을 예상했던 참가 인원이 500명에 그친 것도 그 때문
이란 해석이다.

“서울총회는 이를 교훈삼아 더 많은 출판인들이 흔쾌히 참가할
만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란 그는 “행사 자체 홍보는 물론, ‘가
보고 싶은 나라, 한국’이란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출판 관련 행사와 의제에 그치는 ‘보수적’ 행사가
아닌, 좀더 폭넓고, 탄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각종 문
화적·사회적 볼거리와 느낄거리, 애깃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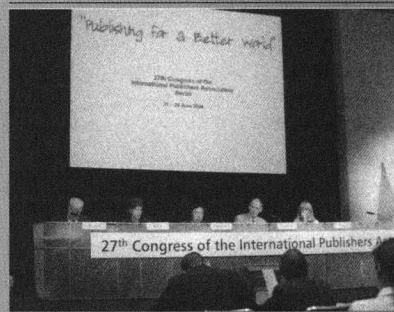
그는 베를린 IPA총회에서 대회기를 인수받는 자리에서도 이런
뜻을 각국 대표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총회 초청사를 통해 “한국
출판인들은 어제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체험하는 다채로운 사교 프로그램에 초대될 것”
이라고 공언했다.

약 1,000명으로 예상되는 참가 대표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소중
한 체험과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
이다. 특히 ‘격조높은 전통문화와 생동하는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우리로서는 국제 출판계 공동관심사와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경
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갖가지 선진 정보를
습득하고, 우리 출판문화를 점검하는 자리로 활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 IPA 13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출판선진국으
로의 도약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를린 총회는 단순한 ‘대회기 인수’나 연례 국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이 회장의 뜻매김이다.

취재 | 박경만 기자 · 사진 | 김대식(객원기자)



출판 콘텐츠 제작·배포·확보에 관한 해법

지난 6월 21일부터 나흘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
탈 호텔에서 열린 제27차 국제출판협회(IPA)총회는
자칫 단조롭다고 느낄 만큼 ‘외관’ 보단 ‘실속’에 무
게를 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막 이틀째부
터 사흘간 계속된 학술회의에선 국제 출판계가 지향
해야 할 합목적적인 해법을 두루 망라했다. 주제발표
를 통해 소개된 출판 콘텐츠 제작과 배포, 확보에 관
한 다양한 방법론은 베를린 총회의 의의를 가장 빛낸
‘콘텐츠’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57년 아시아에선 최초
로 IPA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지난 1999년 IPA
국제위원회의에서 2008년 제28차 IPA총회 개최지
로 선정된 바 있다.

제27차 IPA총회 학술회의

콘텐츠 제작

- 교차로에 있는 출판의 자유
- 디지털 분리 혹은 지구촌
-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독자층을 만드는가?
- 교육에 있어 도서의 역할
- 개발도상국의 출판
- 작가는 새로운 출판사가 필요한가?
- 출판의 다양성
 1. 아동도서 출판
 2. 학술도서의 미래
 3. 전반적 출판 거래
 4. 문학 출판

콘텐츠 배포

- 출판사의 새로운 경쟁자
- 21세기 출판 윤리
-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 작가와 출판사 간의 중재자 에이전트
- 도서 판매의 미래
- 21세기 도서 마케팅
- 출판인들의 협력 단체들(예, 도서관)
- 해외 유통
- 도서전, 가상의 공간에서 개인적 만남
- 특별한 제품을 위한 특별한 조건
- 전자 출판

콘텐츠 확보

- 미래를 위한 저작권의 필수조건
- 정보 체인에서 파트너들의 새로운 역할
- 문화간의 이해 문화 공존을 위한 도구로서 도서